

증거 제출서

사 건 강제추행
피해자 김지연(가명)
피의자 이화섭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순번	제출하는 증거	입증취지
증 제4호증	녹음 파일 CD 및 녹취록	2020. 8. 7.자 범행 관련하여, 이진규가 피해자에게 “(뒤에서)더러운 느낌이어서 백미러로 봤는데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핸들을 틀 어서 (차량 오른쪽이 나무에 긁히는)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
증 제5호증	카카오페이 내역	2020. 8. 13.자 범행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의자, 이진규, 전재환과 함께 술을 마셨고, 며칠 지난 후인 8. 17. 비용을 정산하여 이진규와 전재환에게 송금한 사실

2022. 6.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이지인



변호사 이은초



변호사 유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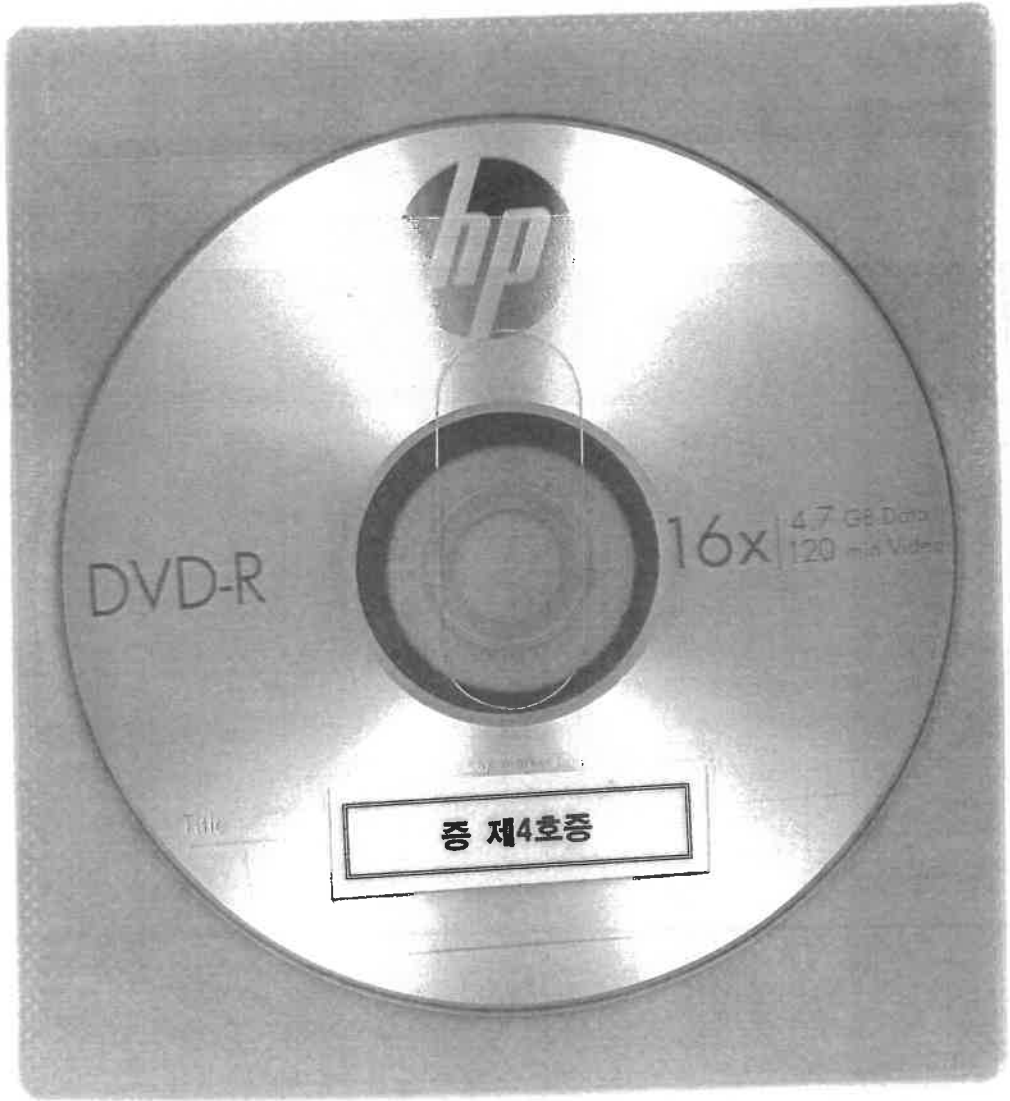
변호사 정용환



경기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김혜인 수사관님 귀중



- 1 -



DVD-R

16x 4.7 Gb Data
120 min Video

증 제4호증

錄 取 錄



이앤이속기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03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사업자등록번호 798-03-01150』

T. 032-321-3374

録 取 録

録 取 場 所	전화통화
録 取 日 時	2022년 1월 27일 18시 43분
對 話 者	박재은 이진규
翻 文 日 時	2022년 5월 27일

- 녹음장소, 일시, 대화자의 성명은 의뢰인의 진술에 의한 것임.
- [] 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의뢰인의 부가 설명임.
- '...' 청취불능 표시임.

速 記 士 이진희 (인)



이앤이속기사무소



錄 取 內 容

[電話通話] 2022년 1월 27일 18시 43분

파일명 : CALL_010-2558-3612_20220127_184321-2

이진규 : 뭐고,

박재은 : 아-

이진규 : 고새 끝났나?

박재은 : 어?

이진규 : 고새 끝났나?

박재은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진규 : ...

박재은 : 아, 그게 아니고,

이진규 : 응.

박재은 : 나는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가지고.

이진규 : 어-

박재은 : 어-. 아니,

이진규 : 어.

박재은 : 기억을 좀 더듬어보고 있는데,

이진규 : 어.



박재은 : 좀 물어보고 할라고. 그런데 선배 거 갔다 왔어요? 노경?

이진규 : 아니, 나 시간 없어 못 갔지.

박재은 : 그러니까 바빠 보이더라.

이진규 : 죽을 뻔했다. 아, 진짜.

박재은 : 이슈 터졌나?

이진규 : 아니, ... 얼룩 본다고 해 가지고.

박재은 : 아-

이진규 : 시료 준비한다고. 끝났다는데. 왜? 왜?

박재은 : 아니, 그날,

이진규 : 어.

박재은 : 그래 가지고 선배가 기억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랑 나는 그래도 차 타고부터는 다 기억나거든.

이진규 : 어.

박재은 : 그래 가지고.

이진규 : 아, 그런데 나도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박재은 : 어.

이진규 : 그 사고난 거랑 그리고 니 앞좌석에 있어 가지고 엮어 가지고 가다가 무거워 가지고 떨어트리고 니가 걸어간 거 끝까지.

박재은 : 어떻게?

이진규 : 어. 그 차 사고난 거는 그때 기억을 얘기하는 거지 니는?

박재은 : 그렇지. 나는 일단 얼마 전에 알은 거니까. 선배가 일부러 막 들고 했던 거를.

이진규 : 응. 나는 그때 가다가 취해서 가다가 이제, 아, 뭔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별로 더러운, 더러운 느낌이었어 하여튼.

박재은 : 어, 뒤에서?

이진규 :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박재은 : 아~.

이진규 : 그런데,

박재은 : 응.

이진규 : 이게 느낌이라서 내가 그때 당시에 본 게 없으니까 진짜 안 보였어. 왜냐면 백미러로 내가 한번 봤었 ...

박재은 : 맞아.

이진규 : 볼 수밖에 없었거든.

박재은 : 응.

이진규 : 쓱 봤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그래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였고.

박재은 : 응. 나 내 기억에도 나 누워 있었거든.

이진규 : 아~.

박재은 : 점점 뒤로 누워지고 있었지. ...

이진규 : (웃음) 그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박재은 : 아, 그렇지. 뭐 다 아는데 뭐. 그렇구나.

이진규 : 응. 나는 딱 이 정도만 알고. 이거는 나중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

박재은 : 알겠어요.

이진규 : 내가 아는 것까지.

박재은 :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기숙사 간 거고.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진규 : 야.

박재은 : 응.

이진규 : 내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때 술 먹은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박재은 : 뭐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렇지 뭐.

이진규 : ... 잘못됐던 것 같아.

박재은 : 그날, 그날 그랬잖아요. 원래 한 2주 정도인가 1~2주 정도 그 사람 막 빠져서 회사에서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상태였고. 기억나나?

이진규 : 맞아, 맞아, 맞아.

박재은 : 맞지? 맞지? 우리도 초반에 약간 눈치 보면서 술 먹었잖아.

이진규 : 응,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박재은 : 응. 하여튼,

이진규 : 갑자기 왜?

박재은 : 아니, 그냥.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혹시 내가 또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연락 따로 안 해 봤어?

이진규 : 안 했지, 어찌하노.

박재은 : 약간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길 가다가 그 사람 또 마주쳐
가지고 김하솔 선임.

이진규 : 아, 어.

박재은 : 응. 그분은 3층에 계셔 가지고.

이진규 : 어, 맞아, 맞아.

박재은 : 지나가다 마주치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났었거든.

이진규 : 응-. 이거도 따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박재은 : 뭐를?

이진규 : 나에 대한 진술을?

박재은 : 내가?

이진규 : 어.

박재은 : 선배가 말을 하면 나도 뭐 다시 부를 수도 있겠지?

이진규 : 아, 그런데 내가,

박재은 : 응.

이진규 : 다시 불러서,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 건 문제없겠지?

박재은 : 그 사람이? 선배들?

이진규 : 아니,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박재은 : 선배 바쁘면 뭐,

이진규 : 아니, 바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뭔가 ‘갑자기 왜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박재은 씨 만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박재은 : 아~.

이진규 : 약간 그런 거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어.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러면 약간 뭐 당신이 뭐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박재은 : 편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진규 : 갑자기 그 생각 드네.

박재은 : 그 뭐 그 사람이 판단할 몫이지 뭐.

이진규 : 한번 얘기한다고 뭐가 문제될 건 없겠지?

박재은 : 응. 얘기하는 김에 음주운전 한 번 더 어필하고.

이진규 : 어? ...

박재은 : 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규 :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얘기 한 번 더 해야지.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딱 건 모르겠고.

박재은 : 내가 알기로는 설 지나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원래 참고인 조사 다 끝낸다 그래 가지고.

이진규 : 응, 내일밖에 없네?

박재은 : 응.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하여튼,

이진규 : 하여튼 내일 다시 한 번 연락해 볼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맨날 출근해 있나?

박재은 : 그렇지 않을까? 지금 일이 이렇게 많다 그랬는데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이진규 : 어떻게 될라나. 걱정된다.



박재은 : 걱정되지.

이진규 : 응, 니도 걱정 안 되나?

박재은 : 나?

이진규 : 응.

박재은 : 나는 에라 모르겠다지 뭐.

이진규 : 구라치지 마라, 스트레스받겠네. 우짜겠노.

박재은 : 선배 어따 떠벌리고 다니지 마요. 소문나면 진짜,

이진규 : 뭐 소문이 다 났지. 뭐 어짜노.

박재은 : 아, 그래도.

이진규 : ...

박재은 : 막 상세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진규 : 상세하게가 어디 있노. 상세하게 그게 어디 있노 내가. 뭐 들은 게 있
어야 얘기를 하지. 그런데 얘기 안 할 거다.

박재은 : 알겠어요.

이진규 : 내가 얘기 많이 하는데 원래. ... 안 되겠더라 도저히. 너무 큰 거라 안
되겠더라.

박재은 : 안 되지.

이진규 : 알겠다, 운동해라.

박재은 : 알겠어요.

이진규 : 응.

박재은 : 내일 봐요.

이진규 : 응.

박재은 : 응.

..... <通話 끝 >

이엔이속기사무소



← 내역

사용

결제

송금확인증

전체

송금

페이머니카드

결제



20:12

받기

17일 (월)



엄마 (이*희)

17:52

+4,000원

받기



전재환 선임님(전*환)

14:32

-10,500원

송금



박재은(우리0789)

14:32

+20,000원

충전



이진규 선임님(이*규)

14:31

-30,000원

송금



박재은(우리0789)

14:31

+30,000원

충전

04일 (화)



박*은(신한5994)

13:00

-302,100원

송금



2020년 8월



증제 5호증

